



도시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 장소애착의 조절효과*

Urban residents' perceived tourism impacts and solastalgia: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이시은(Shi-Eun Lee)^a·심창섭(Changsup Shim)^b

^a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Adjunct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zoe9612@gachon.ac.kr

^b Corresponding author, 가천대학교 관광경영학과(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achon University) cshim@gachon.ac.kr

Article history: Received 31 March 2025; Revised 15 April 2025; Accepted 25 June 2025

요약: 도시민의 일상공간인 도시에 관광객이 늘어나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도시의 변화를 바라보는 도시민은 우울감이나 고통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를 환경심리학에서는 솔라스텔지어라고 지칭한다. 본 연구는 관광객 증가가 서울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이들의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관계에 있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총 529명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활용해 탐색적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민의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수로서 장소애착은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는 반면 부정적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의 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관광영향인식, 솔라스텔지어, 장소애착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 및 관광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시사점이 제시되었다.

핵심 용어: 관광영향인식, 솔라스텔지어, 장소애착, 도시민, 서울

Abstract: The increasing number of tourists in cities, which serve as everyday spaces for urban residents, has extensiv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ocultural impacts. Residents who observe urban changes may experience feelings of sadness or distress, a response referred to as solastalgia in environmental psychology. This study aims to analyze how urban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f tourism development in Seoul affect their experience of solastalgia. The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to Seoul on this relationship.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529 Seoul resi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s' perception of positive tourism impacts showed a negative effect on solastalgia, whereas their perception of negative tourism impacts had a positive effect. Second, place attachment as a moderating variable was found to strengthen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tourism impact perception and solastalgia, but had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negative tourism impact perception and solastalgia.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academic research on the impact of tourism on perception, solastalgia, and place attachment, as well as for practical applications in the tourism industry.

Keywords: Perceived tourism impacts, Solastalgia, Place attachment, Urban residents, Seoul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acho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23.(GCU-202304800001)

I. 서론

2024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10만 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최대치를 달성했던 2019년의 1,390만 명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서울시, 2025). 명동, 인사동, 이태원 등 서울의 잘 알려진 관광명소는 물론이고 서울의 지하철이나 주요 거리, 음식점, 쇼핑몰 등에서 국내·외 관광객을 조우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교통의 발달과 여가시간의 확대로 관광참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방문한 지역의 일상을 가까이서 경험하고자 하는 관광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도시관광은 관광산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심창섭·칼라산토스, 2012; 이후석, 2020; Mihalic, 2020). 동시에 주거, 업무, 여가 등 도시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도시민들의 삶과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경관이나 산업생태계 등에 관광객의 증가가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인해 많은 도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광산업이 지역을 상품화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정체성에 큰 변화를 겪게 된다(Fainstein, 2007; Shim & Santos, 2014). Relph(1976)는 현대사회에서 장소가 저마다의 독특한 장소성을 잃어버리고 장소상실에 이르게 만드는 주 원인으로 관광산업을 지목하기도 했다.

이렇듯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관광학의 주 관심사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조광익·김남조, 2002; 이용학·김용근, 2018; Joo et al., 2019). 관광연구자들은 다양한 관련 이론과 사례 및 실증분석을 통해 관광산업의 확장과 관광객의 증가가 지역에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에 관광이 미치는 영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환경 개선, 문화 및 여가인프라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과 혼잡 증대, 물가 상승, 전통문화 훼손 등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주민들은 이러한 관광의 영향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구자들은 관광의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결정짓는 요인들을 도출하거나 이러한 인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왔다(고동완, 2001; 정승훈, 2019; Sharpley, 2014; Styliadis et al., 2014). 특히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는데 주로 지역의 관광개발

에 대한 이들의 태도나 지지 등과 관련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반면 관광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주민이 어떻게 여기는지가 지역주민의 개인적, 심리적, 정신적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충분히 연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과도한 관광객 증가로 오버투어리즘이 발생한 일부 지역에서 주민의 삶의 질 저하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학술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김소혜, 2022; 우은주 외, 2017; Gössling et al., 2020).

이런 측면에서 최근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큰 관심을 받기 시작한 솔라스텔지어(Solastalgia)의 개념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각자의 개인적인 삶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솔라스텔지어는 2005년 호주의 환경철학자인 Glenn Albrecht가 처음 명명하고 소개한 개념으로서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때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우울감이나 고통을 의미한다(Albercht, 2005, 2006; Albercht et al., 2007). 지금까지 주로 기후위거나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태계가 파괴되거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그 범위를 확장하여 재난, 젠트리피케이션, 공동체 붕괴 등 보다 다양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Askland & Bunn, 2018; Galway et al., 2019). 아직 관광현상과 관련한 솔라스텔지어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관광객 총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이에 따른 지역의 영향,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고려할 때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Lalicic, 2020; Phillips & Murphy, 2021).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는 모두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각자의 판단에 기반하며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전제로 한다. 다만 관광영향인식은 객관적 정보에 근거한 개인의 인지적 판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솔라스텔지어는 보다 정서적,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의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조절변수로 장소애착의 개념을 연구모형에 포함시키고자 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장소에 대한 애착은 장소를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로 여기는 것을 의미하며 해당 장소와 관련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만든다(강영애, 2015; Lalicic & Garaus, 2022). 즉, 지역과 주민의 관계에 있어서 장소애착은 인지적,

정서적인 측면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변수로서 유용성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지역에 대한 장소애착은 관광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이로 인한 슬라스텔지어의 가능성 등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광객 증가가 서울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한 서울시민의 인식이 이들의 슬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관계에 있어 서울에 대한 장소애착이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은 K-culture 열풍의 영향으로 빠르게 글로벌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북촌한옥마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관광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문제까지 부각되고 있어 적절한 연구의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모형과 가설이 설정되었고, 가설검정을 위한 실증 분석을 위해 서울시민 총 529명의 설문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관광영향인식, 슬라스텔지어, 장소애착 등의 개념이 관광연구에 보다 의미있게 활용될 수 있는 학술적 시사점 및 서울이 도시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영향인식

관광영향인식(Perceived tourism impacts)은 관광활동이 특정 지역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으로 정의된다. 관광학에서는 사회교환이론, 지역주민의 태도, 혼잡지각, 지속가능한 관광 등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왔다. 관광영향은 한 지역이 관광지로 물리적으로 개발되고 지역주민이 관광객과 접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무형의 변화를 통칭한다. 이미 발생한 또는 잠재적으로 예상되는 관광영향에 대해서 각 개인은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 이해득실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는 각자의 가치관이나 사회경제적 조건, 지역의 미래에 대한 기대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선행연구에 따르면 지역의 측면에서는 관광지화의 수준, 관광의 유형, 계절성 여부 등이 각자의 관광영향 인식에 영

향을 미치고, 개인의 측면에서는 관광산업 관련성, 관광지로부터의 거리, 관광객과의 조우정도, 지역애착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정승훈, 2019; 한진성 외, 2018; Ap, 1992; Johnson et al., 1994; Styliadis et al., 2014).

지역주민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의 관광영향인식은 그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나 지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방지하고 관광개발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관광영향인식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사회교환이론의 관점에서 관광개발로 인해 얻게 될 편익과 감수해야 할 비용을 도출하기도 하였고 지역주민, 상인, 관광객 등 이해관계자 유형에 따른 관광영향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관광영향인식을 개념적, 실증적으로 접근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관광영향인식이 단일차원의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즉, 관광은 지역사회에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영향에 대한 각자의 인식도 여러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광영향인식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차원으로 구분되어 이해될 수 있다(서세진·서용진, 2019; 이후석·오민재, 2014; 최영배 외, 2023; Joo et al., 2019; Lin et al., 2017; Sharpley, 2014).

관광영향인식을 구성하는 첫 번째 차원은 경제적 차원이다. 외부에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증가는 지역에서의 소비 증가로 이어지며 지역은 새로운 수입원을 갖게 된다. 관광객의 관광시설 이용, 숙박, 식사, 쇼핑 등의 관광활동 대부분의 과정은 모두 소비를 포함하며 지역경제에 기여하게 된다. 관광수요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자본의 투자와 관광인프라 및 시설 건설도 늘어나게 되어 지역경제에 활기를 가져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세수도 늘어날 수 있다. 반면 부동산 투기로 인해 임대료 상승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도 하며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증가는 지역물가 및 생활비 상승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지역경제에서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관광 관련 사업체에 종사하는 비중도 함께 높아지는 점도 경제적 영향으로 볼 수 있다(김성범·권기준, 2022; 이계곤, 2025; 한진성 외, 2018).

두 번째 차원은 환경적 차원이다. 관광객 방문이 시작되면서 기존 지역주민 이외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지역의 물리적 환경에 영향이 생긴다. 우선 관광객의 출현으로 유동인구 구성이 달라져 지역의 풍경이나 분위기가 다채롭게 변화하게 된다. 새로운 관광 사업체나 관련 시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전체적인 경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반적인 지역인프라가 현대화된다. 반면,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이 생기거나 소음, 쓰레기가 늘어나기도 하고 자연환경이나 문화유산이 훼손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기존에 없었던 교통체증이나 주차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관광지화가 지속될수록 관광시설의 화려한 옥외광고나 야간조명 등이 늘어나는 점도 지역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김성범·권기준, 2022; 이재곤, 2025; 종로구, 2021; 정은성·최사라, 2021; 한진성 외, 2018).

세 번째 차원은 사회문화적 차원이다. 한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하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지역 상권에 관광객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업종의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관광비즈니스를 위해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기도 하고 기존 인구가 떠나기도 하는 등 주민구성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함께 거주하며 긴밀했던 주민공동체가 지쳐 온 가치나 규범이 변화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미래에 대한 이견으로 이해관계자들 간에 갈등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소비문화, 외래문화가 유입되면서 생기는 문화접촉으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관광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영향은 오랜 전통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하는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는 과정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이재곤, 2025; 정은성·최사라, 2021; 한진성 외, 2018).

오랫동안 관광산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경제적 편익 측면에서 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 발전이 가속화되는 동시에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관광의 영향을 인식하는지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의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글로벌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향후 불가피한 관광총량의 증가 속에서 어떻게 관광영향인식을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가능하게 할지에 학계와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시은·심창섭, 20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Mihalic, 2020).

2. 솔라스텔지어

인간은 보통 집에 있을 때 안락함과 편안함을 느끼고 집을 떠나 있으며 겪은 긴장으로부터 이완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받는다. 집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살았던 고향이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낸 익숙한 장소 등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이나 소속감과도 연결되는 의미를 지닌다(심창섭, 2014). 이런 장소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급격히 변하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거나 완전히 변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개인을 우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관심을 가져오던 호주의 환경철학자 Glenn Albrecht는 거주지 인근이 원치 않은 환경변화를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개인의 정서적이고 실존적인 고통을 솔라스텔지어(Solastalgia)로 처음 명명했다. '위안'을 뜻하는 'solace'와 고통을 의미하는 'algia'의 합성어인 솔라스텔지어는 호주의 Upper Hunter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민들이 지역의 경관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된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석탄광산과 발전소 등이 급격히 증가한 이 지역에서 주민들은 과거에 느꼈던 편안한 감정과 위안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한다고 주장하며 솔라스텔지어를 '집에 있으면서 느끼는 향수병'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김혜원 외, 2024; Albrecht, 2005, 2006; Albrecht et al., 2007; Philips & Murphy, 2021).

이후 환경심리학 분야에서 솔라스텔지어는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데 주로 생태계 파괴나 기후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개발로 인해 인공물로 대체된다거나,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예전과 같이 농사를 짓기가 어려워지는 등의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즉, 개인의 정체성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데 평소 위안을 얻던 친숙한 장소에 발생한 과도한 변화로 인해 개인과 주변 환경이 정서적으로 단절되어 정체성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래 관계를 맺어 온 지역이 급격하게 변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는 무력감은 개인에게 고통과 우울감을 높여 정신건강에도 누적된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Askland & Bunn, 2018; Galway et al., 2019).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지화로 인한 영향에 대한 관심

이 늘어나면서 솔라스텔지어의 개념이 소개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Lalicic (2020)은 유명 관광도시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해 솔라스텔지어 개념을 관광 분야에 처음 적용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민들이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높을수록 솔라스텔지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밝혀냈다. Kowalczyk-Aniol(2023)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폴란드의 Krakow 지역에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변화를 분석했는데 도시경관의 변화, 관광시설의 증가, 인구구성의 변화 등과 함께 솔라스텔지어를 중요한 변화 중 하나로 도출했다. 김혜원 등(2024)은 서울시민의 오버투어리즘 인식과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의 관계에서 있어 시민들이 서울시에 대해 느끼는 솔라스텔지어 수준이 매개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3. 장소애착

애착(Attachment)은 사람과 사람 또는 사람과 대상 사이에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으로 정의된다. 초기에는 부모, 가족, 친구 등의 가까운 사람에 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나 개념적 범위가 점차 확장되었으며 특히 인간과 환경의 관계의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장소애착(Place attachment)은 인간이 주변의 물리적 환경에 대해 갖고 있는 관심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로,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 장소에 대해 형성하는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유대감으로 정의된다. 사람들은 보통 오랜 시간을 보낸 장소에 친밀감, 친숙함, 소속감을 느끼고 특별한 의미와 애착을 부여한다. 어떤 장소에 애착을 갖고 있는가는 그 사람의 개인적,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장소애착은 해당 장소 및 그 장소를 구성하는 환경과 감정적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장소가 위협에 처할 경우 보호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한승훈·윤동환, 2020; Anton & Lawrence, 2014; Chen & Dwyer, 2018).

장소애착을 형성하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로는 장소의존(Place dependence), 장소정체성(Place identity), 정서적 애착(Emotional attachment) 등이 있다. 장소의존은 장소애착의 기능적, 물질적인 측면으로서 해당 장소가 개인이나 집단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특히 장소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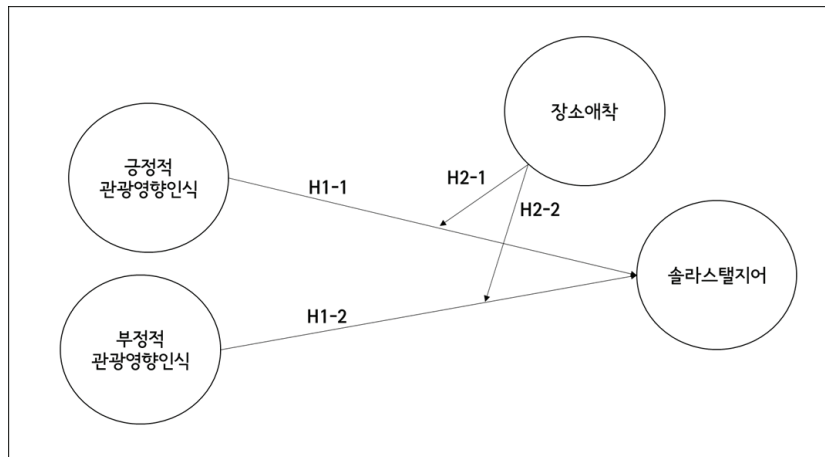
은 다른 장소와의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 보다 명확해지는데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있어 대체불가능한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장소정체성은 그 장소가 개인이나 집단의 정체성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로 정의된다. 즉, 장소정체성은 누군가가 한 장소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거나 어떤 장소를 반복적으로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그 장소가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서적 애착은 장소애착의 감정적인 측면으로 그 장소의 분위기나 느낌, 그 장소에서의 기억, 그 장소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마음이 끌리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서적 애착은 이성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기반한 애착으로 해당 장소에 대해 편안함, 사랑, 그리움 같은 측면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이남희·김남조, 2016; 한승훈·김진욱, 2018; Lalicic & Garaus, 2022;; Zou et al., 2022).

장소애착은 환경심리학, 건축학, 지리학 등 광범위한 학문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관광학에서도 다양한 맥락에서 활발히 적용되고 있다. 특히 장소애착을 가져오는 선행변수 또는 장소애착으로 인한 결과변수 등 인과관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장소애착의 선행변수로는 거주기간이나 방문빈도, 장소 관련 경험, 소속감 등이 있으며 장소의 물리적 특성이나 독특성, 기능성 등도 장소애착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소애착은 관광객의 재방문 및 구전 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지역주민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나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태도, 장소 관련 활동에의 참여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장소애착은 조절변수로도 흔히 쓰이고 있는데 선행연구에 따르면 관광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의도 간의 관계, 환경태도와 친환경 행동 간의 관계, 공동체의식과 주민 참여 간의 관계 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진숙, 2019; Ouyang et al., 2017; Prayag et al., 2022).

III.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서울시민의 관광영향인식이 이들의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있어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가설설정

1)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의 인과관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환경에 변화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사람들은 심리적, 정신적인 영향을 받는다. 문하늬 외(2018)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재희·김희연(2020)은 경기도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들의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관광으로 인한 지역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지역주민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Styliadis et al. (2014)는 그리스의 Kavala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관광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관광개발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진성 외(2018)는 제주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지속적 관광개발지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지역주민이 인식하는 지역의 변화는 솔라스텔지어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Chen et al. (2025)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도시화로 인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혜원 외(2024)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의 오버투어리즘을 높게 인식할수록 이들이 느끼는 솔라스텔지어가 높아진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1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도시민의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가설 1-1: 도시민의 관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가설 1-2: 도시민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2) 장소애착의 조절효과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장소에 대한 애착은 그 장소의 변화가 이들이 지각하는 다양한 유형의 감정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의 수준을 조절할 수 있다. Sawada & Toyosato (2021)는 일본 오키나와 농촌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이 인식하는 경제적 수준과 웰빙과의 관계에 있어 거주지에 대한 장소애착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했다. Prayag et al. (2022)은 이탈리아 밀라노 주민을 대상으로 2015 세계엑스포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이 인식하는 도시에 대한 장소애착이 엑스포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인식과 엑스포에 대한 지지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uyang et al. (2017)은 브라질의 2014 월드컵 개최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들의 도시에 대한 장소애착이 이벤트 개최의 영향에 대한 인식과 그들의 이벤트에 대한 감정 및 지지를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미진(2018)은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연결성과 우울의 관계에서 지역사회에착이 조절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설 2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도시민의 장소애착은 관광에 대한 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2-1: 도시민의 장소애착은 관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가설 2-2: 도시민의 장소애착은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IV. 연구 방법

1. 측정 도구

1) 관광영향인식

서울시민이 인식하는 관광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한진성 외(2018), 서세진·서용건(2019)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관광객 증가로 인해 서울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등 긍정적 영향인식 6문항과 ‘관광객 증가로 인해 서울의 혼잡이 심해졌다’ 등 부정적 영향인식 6문항을 도출하였다.

2) 솔라스텔지어

서울시민이 느끼는 솔라스텔지어를 측정하기 위해 Phillips & Murphy (2021), Cáceres et al.(2022), Lalicic (2020)의 연구를 바탕으로 ‘나는 서울의 예전의 모습이 그림다’, ‘나는 현재의 바뀐 서울의 모습이 안타깝다’ 등 6문항을 도출하였다.

3) 장소애착

서울시민이 서울에 대해 느끼는 장소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고진숙(2019), 이의수(2022), Chen & Dwyer(2018) 등을 참고해 “서울은 내 인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난 서울에 강한 소속감을 느낀다” 등 6문항을 도출하였다.

2. 자료수집과 분석

연구목적 달성을 위한 자료수집을 위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시행되었다. 설문지는 긍정적 관광영향인식(5문항), 부정적 관광영향인식(5문항), 솔라스텔지어(6문항), 장소애착(5문항) 인구통계적 특성(6문항) 등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는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해 진행되었으며 표본은 성별, 연령, 지역 등 인구통계적 분포를 고려하되 의도적 표본추출 방식으로 추출되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했으며 2023년 8월과 202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총 550개의 표본 가운데 답변의 불성실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529개가 유효 표본으로 분석에 포함되었다. 설문결과는 SPSS 23.0을 활용해 기초통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다중회귀분석, 조절효과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V. 분석 결과

1. 표본의 특성

<표 1>은 본 연구에서 수집된 표본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여준다. 성별은 남성이 260명(49.1%), 여성이 269명(50.9%)이며 연령은 30대가 129명(23.4%)으로 가장 비율을 차지했다. 직업은 직장인이 342명(64.7%)으로 제일 많았고 학력은 전문대/대졸이 322명(60.9%)을 차지했다. 가구 월소득은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인 176명(33.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서울 거주기간은 1년 이상 5년 미만 비율이 176명(33.3%)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송파구가 37명(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강서구 34명(6.4%), 강남구 30명(5.7%) 순으로 나타났다.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인식, 솔라스텔지어, 장소애착 등 4개 변수의 측정항목을 주성분분석과 배리맥스(Varimax) 방식을 적용하여 <표 2>와 같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에 따라 요인적재량 0.5 이하 또는 복수의 요인에 0.5 이상의 요인적재량이 나타난 경우 해당 측정항목을 제거하였다 (Anderson & Gerbing, 1988). 이에 따라 부정적 관광영향

<표 1> 표본의 특성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변수	구분	빈도 (명)	비율 (%)
성별	남	260	49.1	학력	고졸이하	95	18.0
	여	269	50.9		대학재학	37	7.0
연령	20대	124	23.4	전문대/대졸	322	60.9	
	30대	129	24.4		대학원졸 이상	75	14.2
	40대	106	20.0	가구 월소득	200만원 미만	78	14.7
	50대	97	18.3		2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6	33.3
	60대 이상	73	13.8		4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118	22.3
직업	직장인	342	64.7	6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88	16.6	
	자영업	26	4.9		800만원 이상	69	13.0
	학생	49	9.3	서울 거주 기간	1년 미만	69	13.0
	주부	37	7.0		1~5년미만	176	33.3
	무직/퇴직	26	4.9		5~10년미만	109	20.6
	기타	49	9.3		10년 이상	75	14.2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적재량	고유값	분산%	cronbach's α
긍정적 관광영향 인식	관광산업은 서울에 경제적 편익을 가져온다	.886	2.699	13.497	.825
	관광객 증가는 서울에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752			
	관광산업은 서울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만들고 있다	.644			
	관광객 증가는 서울에서 타문화와 교류기회를 제공한다. 관광산업으로 인해 서울시민의 여가공간이 늘었다.	.678 .616			
부정적 관광영향 인식	관광객 증가로 인해 서울의 혼잡이 심해졌다	.739	1.442	7.208	.797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물가가 상승했다	.734			
	관광산업으로 인해 서울의 환경이 악화되었다.	.693			
	관광산업은 서울의 전통적 문화를 훼손하고 있다	.663			
솔라스텔 지어	나는 현재의 바뀐 서울의 모습이 안타깝다	.843	6.590	32.950	.915
	나는 서울의 예전의 모습이 그립다	.835			
	서울의 건축물과 경관이 바뀌고 있는 것이 슬프다	.828			
	내가 좋아하던 서울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	.825			
	서울의 변화가 나를 우울하게 만든다	.753			
	서울의 변화 때문에 내 생활에 영향이 생겼다	.739			
장소애착	서울은 내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892	1.242	59.868	.829
	서울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공간이다	.757			
	서울은 나에게 매우 특별한 곳이다	.619			
	나는 서울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다	.693			
	서울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적합한 곳이다	.616			

KMO=0.879, $\chi^2=3829.410(p<.000)$

인식에서 1개 문항이 제거되었다. 최종적으로 포함된 측정항목은 Cronbach α값이 0.7 이상으로 신뢰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변수 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표 3>과 같이 각 변수의 평균분산추출값(AVE)과 요인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을 비교하였다. 각 요인의 상관계수 제곱값이 평균분산추출값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수 간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가설검정

1)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가설 1을 검정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와 같이 회귀모형은 $p=.000$ 에서 $F=95.727$, 수정된 R^2 는 .297로 29.7%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독립변수인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의 β값은 -0.128로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부(-)의 영

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의 β값은 .492로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설 1-1 및 1-2는 모두 채택되었다.

2) 장소애착의 조절효과

가설 2와 관련해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 간의 관계에 있어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3단계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각 단계의 유의확률 F변화량이 .05보다 작으며, 회귀모형의 R² 값이 1단계(.297), 2단계(.315), 3단계(.341)를 거치며 유의한 증가를 나타냈다.

2단계에서는 장소애착이 P<.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으며 3단계에서는 긍정적 관광영향인식과 장소애착 간의 상호작용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관광영향인식과 장소애착 간의 상호작용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소애착은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가설 2-1을 채택되었으며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가설검정의 결과를 종합하면 <표 6>과 같다.

<표 3> 판별타당도 분석 결과

	긍정적 관광영향인식	부정적 관광영향인식	솔라스텔지어	장소애착	AVE
긍정적 관광영향인식	1.000	-	-	-	.521
부정적 관광영향인식	-.351** (.123)	1.000	-	-	.501
솔라스텔지어	.313** (.103)	-.531** (.282)	1.000	-	.648
장소애착	.521** (.271)	-.164** (.027)	-.078 (.006)	1.000	.522

주: 괄호 위의 수치가 상관계수이며 괄호 내의 수치는 상관계수의 제곱값임

<표 4>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표준오차	β	t	유의확률
솔라스텔지어	(상수)	1.296		6.723	.000
	긍정적 관광영향인식	-.128	-.145	-3.430	.001
	부정적 관광영향인식	.492	.480	11.350	.000

R²=.300, 수정된 R²=.297, F=95.727, p=.000

* : p<.05, ** : p<.01

<표 5> 장소애착의 조절효과

독립변수	1단계		2단계		3단계	
	Beta	t	Beta	t	Beta	t
긍정적 관광영향인식	-.128	-3.430**	-.178	-4.126**	-.192	-4.442*
부정적 관광영향인식	.492	11.350**	.490	11.347**	.478	11.069*
장소애착	-	-	.084	2.283*	.277	2.422*
긍정적 관광영향인식 × 장소애착	-	-	-	-	-.069	-2.466*
부정적 관광영향인식 × 장소애착	-	-	-	-	.043	.948
수정된 R ²	.297		.315		.341	
R ² 증감	-		.018		.026	
F	95.727**		66.158**		41.878**	
유의확률 F변화량	.000		.013		.029	

* : p<.05, ** : p<.01

〈표 6〉 가설검정 결과 요약

가설	결과
1-1 도시민의 관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1-2 도시민의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은 솔라스텔지어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채택
2-1 도시민의 장소애착은 관광에 대한 긍정적 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채택
2-2 도시민의 장소애착은 관광에 대한 부정적 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한다.	기각

VI. 결론

관광산업이 급성장하고 여행이 현대인의 일상이 되면서 주요 대도시에서 관광객을 만나는 일은 점점 더 흔해졌다. 도시에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이들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해 도시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으로 변화를 겪게 된다. 관광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도시민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도시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가졌는지에 따라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변화를 우울하게 또는 고통스럽게 여기는 솔라스텔지어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시는 K-culture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관광객이 도시의 많은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른 변화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긍정적·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있어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의 증가는 솔라스텔지어를 감소시킨다. 즉, 관광객 증가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서울시의 변화에 대해 덜 우울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부정적 관광영향인식의 증가는 솔라스텔지어를 증가시킨다. 다시 말해, 서울시에 관광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서울시의 변화에 대해 시민들이 더욱 고통스러워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절변수로서 장소애착은 긍정적 관광영향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시키는 반면 부정적 관광영향인식과 솔라스텔지어의 관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시에 대한 애착이 강한 시민들이 관광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면 솔라스텔지어의 가능성이 더욱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인 관광영향인식을 지닌

시민들은 서울시에 대한 애착여부와 무관하게 서울의 변화를 우울하게 여기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주지역에 대한 높은 장소애착이 솔라스텔지어의 촉진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설을 기각하는 이 결과에 따라 높은 장소애착은 관광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는 주민의 정신건강의 측면에서 언제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의 관광영향인식이 야기하는 결과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다양한 맥락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대부분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태도나 지지 등 사회적인 관점에 주로 집중된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솔라스텔지어라는 개인적 감정 및 정신건강과 관련된 변수를 소개하고 유의한 인과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관광영향인식 연구가 이론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 둘째, 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솔라스텔지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김재희·김희연(2020), 김혜원 외(2025), Chen et al. (2025) 등의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연구에서 솔라스텔지어의 이론적 유효성 및 확장성을 재확인하였다. 즉, 그동안 기후변화, 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적 측면에서만 주로 연구되어 온 솔라스텔지어가 도시 및 관광이라는 사회문화적 비중이 높은 영역에서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도 유의미한 변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동안 장소애착은 지역의 맥락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감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여겨졌으나(박미진, 2018; Sawada & Toyosato, 2021) 본 연구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관광이라는 분야적 특수성인지 또는 서울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인지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판단하기 다소 어려우며 추가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에 광범위한 영향을 가져오는 관광산업이 도시민과 같든하거나 도시민의 행복을 저해하지 않고 도시의 한 요소로 공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관광산업이 슬라스텔지어와 같은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관광, 관광수용력, 과잉관광 등의 정책이나 법제도를 추진함에 있어 정신적, 심리적 측면을 포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주요 관광지역이나 대규모 관광개발이 진행되는 지역 등에 대해 지역주민의 슬라스텔지어 여부 등 정신적, 심리적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관광충량의 불가피한 증가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관광객의 급증이 슬라스텔지어 등 도시민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민이 관광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은 교육자료, 대중매체,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관광인식제고 캠페인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슬라스텔지어를 완화하는데 있어 장소애착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도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애착과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 도시가 향후 관광산업의 영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광개발의 추진과 더불어 도시민의 도시에 대한 애착을 늘리기 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지역기반 경제 육성 등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연구결과와 유용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관광영향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정신건강의 차원인 슬라스텔지어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영향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과도하게 단순화한 점은 한계로 여겨진다. 관광 분야에서 슬라스텔지어 연구가 아직 탐색적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슬라스텔지어를 야기하는 구체적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념적 연구 및 정성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인구 1,000만 명의 서울이라는 대도시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다보니 관광산업이 미치는 개인적 영향은 큰 편차를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표본의 상당수가 서울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인 점도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오버투어리즘의 초기 단계 정도로 볼 수 있는 서울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결과는 저마다 다른 관

광발전의 단계를 겪고 있는 다른 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문화적 특성의 도시를 대상으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일반화할 수 있는 이론적 함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

참고문헌

- 강영애 (2015). 관광분야 학술지 장소애착 연구동향 분석. *관광학 연구*, 39(2), 103-118.
- 고동완 (2001). 인구통계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차이. *관광학연구*, 25(3), 63-80.
- 고진숙 (2019). 도시관광 재생사업에서 공동체의식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장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성범·권기준 (2022). 관광영향인식이 갈등과 지역애착도에 미치는 영향. *이벤트컨벤션연구*, 48, 129-148.
- 김소혜 (2022). 관광지에서의 지역주민 현장경험과 삶의 질에 대한 이해: '정숙관광 캠페인' 경험에 대한 해석학적 현상학의 접근. *관광학연구*, 46(4), 103-126.
- 김재희·김희연 (2020). 노인의 지역환경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기구유형별 비교를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2(2), 423-452.
- 김혜원·우현조·심창섭 (2024). 도시민의 오버투어리즘 인식과 관광개발 지지: 슬라스텔지어의 매개효과. *호텔관광연구*, 26(3), 13-25.
- 문하늬·채철균·송나경 (2018). 지역사회 물리적 환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서울도시연구*, 19(2), 87-103.
- 박미진 (2018). 사회적 연결성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애착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73(3), 55-81.
- 서세진·서용건 (2019). 초등학생의 관광영향인식이 관광객에 대한 정서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학연구*, 43(3), 107-126.
- 서울시 (2025). 1월 서울 외국인 관광객, 코로나19 전보다 늘었다. Retrieved March 24, 2025 from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13686>
- 심창섭 (2014). 도시관광에서 장소의 의미: Relph의 장소와 장소상실을 중심으로: Relph의 장소와 장소상실을 중심으로. *관광연구논총*, 26(1), 27-43.
- 심창섭·칼라산토스 (2012). 도시관광에서의 진정성 개념에 관한

- 탐색적 고찰. *관광연구논총*, 24(3), 33-56.
- 우은주·김영국·남장현 (2017). 투어리스트피케이션 현상이 지역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성적 연구: 북촌한옥마을과 이화벽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북촌한옥마을과 이화벽화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9(11), 417-436.
- 이남희·김남조 (2016). 도시관광에서 장소의 의미와 애착: Visitor Employed Photography 적용: Visitor Employed Photography 적용. *관광연구논총*, 28(4), 147-169.
- 이시은·심창섭 (2023). 오버투어리즘이 도시민의 장소성 변화인식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논총*, 35(4), 103-125.
- 이용학·김용근 (2018). 지역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사회표상 및 분포특성 연구. *관광연구저널*, 32(5), 1-17.
- 이재곤 (2025). 해양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장소애착, 공동체 의식, 개발지지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관광진흥연구*, 13(1), 183-202.
- 이후석 (2020). 한국의 도시관광에 관한 연구동향과 과제: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2), 173-185.
- 이후석·오민재 (2014). 지역애착과 관광영향인식이 메가 스포츠 이벤트 개최 지지여부에 미치는 영향: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28(12), 5-16.
- 정승훈 (2019). 정치적 임파워먼트가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영향인식, 정부 신뢰, 개발지지에 미치는 영향: 제주도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33(8), 47-64.
- 정은성·최사라 (2021). 해양레저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 공동체 의식, 개발지지도의 구조적 관계 연구. *관광진흥연구*, 9(3), 215-234.
- 조광익·김남조 (2002).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 분석. *관광학연구*, 26(2), 31-51.
- 종로구 (2017). 특별관리지역 지정 진단지표 개발 연구.
- 최영배·김동한·박효연 (2023). 지역 주민들의 MICE 산업 효과인식과 정책 지지도 사이의 관계-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전시연구*, 18(3), 25-45.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오버투어리즘 현상과 대응방향.
- 한승훈·김진옥 (2018). 지역주민의 지역애착, 공동체 의식, 태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관광연구저널*, 32(12), 5-18.
- 한승훈·윤동환 (2020). 지역주민의 지역애착이 관광개발 태도와 지지도에 미치는 영향: 광주광역시 어등산 관광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4(9), 21-35.
- 한진성·문현철·윤지환 (2018). 제주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인식과 지속적 관광개발 지지의사 간 관계에서 지역애착도의 조절효과. *관광학연구*, 42(10), 93-109.
- Albrecht, G. (2006). Solastalgia. *Alternatives Journal*, 32(4/5), 34-36.
- Albrecht, G. A. (2005). Solastalgia: A new concept in human health and identity. *Philosophy, Activism, Nature*, 41(3), 44-59.
- Albrecht, G., Sartore, G. M., Connor, L., Higginbotham, N., Freeman, S., Kelly, B., ... & Pollard, G. (2007). Solastalgia: the distress caused by environmental change. *Australasian Psychiatry*, 15(1), S95-S98.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423.
- Anton, C. E., & Lawrence, C. (2014). Home is where the heart is: The effect of place of residence on place attachment and community participa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40, 451-461.
- Ap, J. (1992). Residents' perceptions on tourism impa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9(4), 665-690.
- Askland, H. H., & Bunn, M. (2018). Lived experiences of environmental change: Solastalgia, power and place. *Emotion, Space and Society*, 27, 16-22.
- Caceres, C., Leiva-Bianchi, M., Serrano, C., Ormazabal, Y., Mena, C., & Cantillana, J. C. (2022). What is solastalgia and how is it measured? SOS, a validated scale in population exposed to drought and forest fir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20), 13682.
- Chen, J., Zhao, W., Yuan, G., Wang, L., Zhou, Y., Xiao, X., & Geng, L. (2025). Solastalgia and public environment-friendly behaviors in the urbanization contex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110, 107714.
- Chen, N., & Dwyer, L. (2018). Residents' place satisfaction and place attachment on destination brand-building behaviors: Conceptual and empirical differentiation. *Journal of Travel Research*, 57(8), 1026-1041.
- Fainstein, S. S. (2007). Tourism and the commodification of urban culture. *The Urban Reinventors*, 2, 1-20.
- Galway, L. P., Beery, T., Jones-Casey, K., & Tasala, K. (2019). Mapping the solastalgia literature: A scoping review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5), 2662.
- Gössling, S., McCabe, S., & Chen, N. C. (2020). A socio-psychological conceptualisation of overtourism. *Annals of Tourism*

- Research*, 84, 102976.
- Johnson, J. D., Snepenger, D. J., & Akis, S. (1994). Residents' perceptions of tourism development.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3), 629-642.
- Joo, D., Cho, H., & Woosnam, K. M. (2019). Exploring tourists' perceptions of tourism impact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31, 231-235.
- Kowalczyk-Aniol, J. (2023). Rethinking tourism-driven urban transformation and social tourism impact: A scenario from a CEE city. *Cities*, 134, 104178.
- Lalicic, L. (2020). Solastalgia: An application in the overtourism context. *Annals of Tourism Research*, 82, 102766.
- Lalicic, L., & Garaus, M. (2022). Tourism-induced place change: The role of place attachment, emotions, and tourism concern in predicting supportive or oppositional behavioral respons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61(1), 202-213.
- Lin, Z., Chen, Y., & Filieri, R. (2017). Resident-tourist value co-creation: The role of residents' perceived tourism impacts and life satisfaction. *Tourism Management*, 61, 436-442.
- Mihalic, T. (2020). Conceptualising overtourism: A sustainability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84, 103025.
- Ouyang, Z., Gursoy, D., & Sharma, B. (2017). Role of trust, emotions and event attachment on residents' attitudes toward tourism. *Tourism Management*, 63, 426-438.
- Phillips, C., & Murphy, C. (2021). Solastalgia, place attachment and disruption: insights from a coastal community on the front line. *Regional Environmental Change*, 21, 46.
- Prayag, G., Chowdhury, M., Prajogo, D., Mariani, M., & Guizzardi, A. (2022). Residents' perceptions of environmental certification, environmental impacts and support for the world expo 2015: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emporary Hospitality Management*, 34(3), 1204-1224.
- Sawada, S., & Toyosato, T. (2021). The moderating effect of place attach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status and well-being among the older adults in Japan. *Geriatric Nursing*, 42(3), 721-726.
- Sharpley, R. (2014). Host perceptions of tourism: A review of the research. *Tourism Management*, 42, 37-49.
- Shim, C., & Santos, C. A. (2014). Tourism, place and placelessness in the phenomenological experience of shopping malls in Seoul. *Tourism Management*, 45, 106-114.
- Stylidis, D., Biran, A., Sit, J., & Szivas, E. M. (2014). Residents' support for tourism development: The role of residents' place image and perceived tourism impacts. *Tourism Management*, 45, 260-274.
- Zou, W., Wei, W., Ding, S., & Xue,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place attachment and tourist loyalty: A meta-analysis. *Tourism Management Perspectives*, 43, 100983.